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토대로 한 기업 지속가능가치평가

Sustainable Value for the Sustainability Evaluation of Corporate: Focused on Evaluation based on Sustainability Report

남상민

동명대학교 유통경영학과

Sang-Min Nam(smnam@tu.ac.kr)

요약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보고서평가 시 지속가능한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기업 지속가능가치에서 찾아보며, 이를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토대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가치는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 사회 그리고 생태적 영역에 걸친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론이다. 기존의 지속가능성평가모델들이 기업이 생산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외부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평가하는 부하 지향적 방법이었다면 지속가능가치는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교대상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였는가의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가치 지향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토대로 한 지속가능가치 평가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질, 지속가능성보고서 내용의 충실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보고서가 기술하고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지속가능경영 | 지속가능성보고서 |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가치 |

Abstract

This research proposes a new approach to measure corporate contributions to sustainability called Sustainable Value. With some global corporations which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crisis and their social responsibility, enterprises are positively accepting the sustainable management. Also, publication of the sustainability report is proliferating which is showing the enterprise's strategy, activity, result and influence in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cases to the stakeholder. However, to settle and proliferate this current, it rests with how to evaluate enterprises sustainability in reasonable and reliable figure. In this context, what introduced and taking effects are sustainability report evaluation and awarding system. But the quality of sustainability report and its content's depth and the evaluation of enterprise's sustainability itself should be distinguished. Because the enterprise which published excellent graded sustainability report is not always the enterprise that is sustainable. Then, how could we prove the result of enterprise's sustainable management based on sustainability report? This paper is to find the answer and to utilize it based on sustainability report, particularly sustainable value model as the central figure.

■ keyword : | Sustainability Management | Sustainability Reporting | Sustainable Value | Sustainability Performance Evaluation |

I. 서론

최근 정부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 패러다임으로 설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계는 하루아침에 녹색 지대로 변했다. 미시적 차원에서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는 기업의 경영패러다임이 지속가능경영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 과정을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통합 추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성과가 확산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평가는 단기적 이윤극대화 논리를 뛰어넘어 미래세대까지 고려하며 장기적 기업활동의 유지에 중점을 두고 기업운영현황을 재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사결정이 필요한 금융시장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집단에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 지속가능성평가는 경제, 환경, 사회영역에 걸친 경영의 질, 지배구조, 관리체계,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및 혁신전략 등과 같은 비재무적 관점에서 경영여건과 역량을 파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자의사결정의 지표로 고려하게 된다면 기업에게 지속가능경영을 수행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성과의 입증 및 투명성 확보, 나아가 기업명성의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이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 그러나 지속가능경영성과의 내·외부적 커뮤니케이션수단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간이 확산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도 또한 객관적인 평가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가 포함하는 정보가 이해관계자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그리고 평가체계에 대해서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에 의해 환경보고서 및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발 및 제시

되고 있다[5][19][13]. 이러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지침 가운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이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되면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글로벌기업들이 이 지침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독일, 영국 등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15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 평가 및 시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보고서의 질, 더 나아가서는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보고서평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보고서 평가기준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GRI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 작성원칙인 포괄성, 신뢰성, 의사소통 가능성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1][13][31].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평가 및 시상은 발간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질적 평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역량 공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질적 향상에 기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수용과 인지도 개선, 환경보호활동과 관계된 일반적 지식수준과 환경보호 성과제고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성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구분되어야 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이 곧 지속가능한 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성보고서 평가와 기업의 지속가능성평가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곧 보고서 평가 시 지속가능한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지속가능가치(Sustainable Value)모델에서 찾고, 이를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토대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지속가능성보고서평가 및 그 한계

1. 지속가능성보고서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기업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전략, 활동, 성과, 영향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수단이다.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기업의 사회적 리더십을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1].

지속가능성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쟁점이 존재하지만 GRI는 2000년 G1, 2002년 G2에 이어 2006년 G3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서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14][32]. 대부분의 글로벌기업들이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지침에 준용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항목으로 ① 조직개요, ② 환경정책과 환경목적 및 목표, ③ 환경경영시스템, ④ 환경성과의 평가, ⑤ 기타의 사항으로 대별된다[13].

최근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1993년 불과 100개미만의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나 2003년에는 약 1,300개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2009년 Fortune지가 선정하는 상위 250개 기업 중 77%가, 그리고 국내 70여개 기업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0][31].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양적 성장과 함께 보고서 자체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평가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본 장에서 분석하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서 평가체계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시상제도, 특히 ACCA(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UK Awards for Sustainability Reporting과 ESRA(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Awards)를 근거로 탐색한다 [1][30][31].

지속가능성보고서평가 및 시상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질적 및 양적 향상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은 유럽 15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 지속가능성보고서 시상제도(ESRA)를 공동 운용하고 있다.

ESRA는 유럽 15개국의 시상제도에서 각각 두 편의 우수 환경보고서 및 지속가능성보고서로 선정된 기업의 보고서가 평가대상이 되며, 각 참가국을 대표하는 심사위원들과 두 개의 독립기관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평가된다. 현재 심사단이 선정하는 시상종류는 best sustainability report, best environmental report 그리고 commendation for SME sustainability report로 구분된다[30]. ESRA의 평가기준은 [표 2]와 같이 크게 내용(contents: 50%)과 보고원칙(reporting principles: 50%), 그리고 각 구분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30].

표 1. ESRA의 평가기준

구분	항목
내용 (50%)	1. 경영자의 성명(5%)
	2. 보고 및 회계방침(5%)
	3. 보고 조직의 개요(5%)
	4. 요약 및 핵심지표(5%)
	5. 비전 및 전략(5%)
	6. 방침, 조직, 경영시스템/이해관계자관계(10%)
	7. 성과(15%)
보고원칙 (50%)	1: 관련성(5%)
	2: 신뢰성(5%)
	3: 명료성(5%)
	4: 비교가능성(5%)
	5: 시기적절성(5%)
	6: 완전성(5%)
	7: 검증가능성(10%)
	8: 전반적인 인상(10%)

영국의 지속가능성보고서 평가는 ACCA UK Awards for Sustainability Reporting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시상종류는 sustainability reporting category, environmental reporting category, social reporting category, electronic media commendations로 나누고 있다. 평가기준은 크게 완성도(40%), 신뢰성(35%), 의사소통(25%)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며 각 범주마다 세부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보고서 추세, 환경테마, 특별한 부분별 이슈, 혁신적인 보고방법 등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30].

표 2. ACCA의 평가기준

구분	항목
1. 완전성: 40% • 우수한 환경/사회/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독자들이 하여금 기업의 운영과 환경영향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완전성 검토는 환경/사회/지속가능성보고서의 목적을 위한 보고주체의 정의에 관해 명료해야 함과, 보고주체의 모든 중요한 환경영향이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으로 구성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개요: 제품/서비스, 재무성과, 지정학적 위치, 고용정보 주요(작간점) 환경영향 환경방침과 경영층의 참여 보고서에 사용된 환경성과지표(EPI) 선택의 타당성 환경목표와 세부목표 제품에 대한 책임성(설계, LCA, 폐기방침) 공급자에 대한 방침 보고서의 범위 및 독자에 대한 규명 보고와 회계방침(보고 간격, 통합 등) 환경보고와 지속가능성 이슈와의 연계
2. 신뢰성: 35% • 내부 신뢰성: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조직이 나타낼 수 있도록 조직구조, 절차, 조절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 • 외부 신뢰성: 내부시스템과 정보가 적절하게 검토되고 외부기관의 견해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와 관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주요 환경적 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이슈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임원 및 보고서 담당자 이름과 정보 경영시스템과 이의 business process에의 통합 비상사태대응계획 및 위험관리 내부감사과정 및 법규준수기록 경제/사회/환경영향데이터(연도별 또는 산업별 비교데이터, 절대 또는 표준화된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사용(에너지, 원료, 물, 포장), 토양오염 /복원 배출물(대기, 수계, 토양오염)의 배출 및 제품/폐기물 발생), 수송(연료소비와 보유대수) 전통적 재무 관련 데이터(환경투자, 설비, 부채 등) 환경재무 statement와 full cost Accounting 외부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O/EMAS 인증 보고가이드라인의 적용(GRI, DETR)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및 feedback사용 외부검증
3. 의사소통: 25% • 지속가능성/환경/사회보고서가 선정한 독자와 어느 정도까지 의사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의사소통하는 매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치와 표현 이해가능성, 읽기수월성, 접근성, 분량, 빈도, 요약보고서 의사소통과 피드백 메커니즘 혁신적인 방법(approaches) 인터넷사용, 웹 사이트 및 다른 보고서 언급 그래프, 사진, 그림의 사용 재무보고서와의 통합

2. 지속가능성보고서 평가의 특징과 한계

지속가능성보고서 시상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대부분 국가의 평가체계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내용적 차별성과 내용의 적합성을 대분류(포괄성, 명료성, 신뢰성, 충족성 등), 중분류(구성의 상위내용), 소분류(구성의 세

부내용)로 묶어 평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적합성 부분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구성하는 세부내용의 모든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평가의 모호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편 GRI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지침이 국제 표준으로 사용됨에 따라 상술한 지속가능성보고서시상을 위한 평가 기준 또한 동질화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학계, 정부, 연구기관, 관련협회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시상제도의 운영은 정부, 언론기관, 환경관련 협회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보고서 시상과 이를 위한 평가체계는 발간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질적 평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게 커뮤니케이션역량을 공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질적 향상에 기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수용과 인지도 개선, 환경보호활동과 관계된 일반적 지식수준과 환경보호 성과제고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시상을 위한 평가는 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성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이며, 지속가능성보고서가 기술하고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경제, 사회, 생태)성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기업이 곧 지속가능경영성과가 높으며 지속가능한 기업인가에 대한 객관화에는 문제가 따른다. 즉 지속가능성보고서평가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성과,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사이의 등가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가, 또한 보고서내용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기업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토대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속가능가치(Sustainable Value)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기업의 지속가능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한다.

III. 지속가능성평가와 지속가능가치

1. 지속가능성평가

지속가능성 컨셉은 최초로 경제학에서 자본투입을 바탕으로 제시된 개념이다[14][15][28][22]. 자본은 인공자본(man-made capital)과 인적자본(human capital),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그리고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자본 또는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지속가능하다고 평가된다[16][25][21][6][21]. 이러한 constant capital rule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 역시 높은 삶의 질을 영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자본스톡(capital stock)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자본형태 사이의 대체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본형태 간 대체의 허용 문제는 강한(strong) 그리고 약한(weak) 지속가능성의 본질적인 차이를 의미한다[18][28][17]. 약한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자본형태 사이의 임의적 대체의 허용, 즉 하나의 자본형태의 축소는 그에 상응해서 다른 자본형태의 증대를 통해 상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자본형태가 대체될 수 없으며, 자본형태에서 최소요구가치(critical value)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의 자본형태가 대체 불가능하며, 최소요구치(critical threshold size)의 유지를 강조한다. 이는 대부분의 자본형태가 서로 보충적 관계에 존재한다는 인식에 근거한다[8]. 강한 지속가능성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자연자본(또는 최소한 자연자원의 일부분)에 대해 최소요구가치를 가정한[8].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거시 경제적 컨셉으로서 개발된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업의 개별경제 영역에 수용되어왔다[23][3].

기업 지속가능경영성과 또는 다른 경제적 본질의 평가를 위해 경제적 활동의 외부비용(external cost)이 고려되고 있다[3]. 이는 기업 지속가능성 성과의 평가를 위해 기업이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그의 외부비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외부비용은 기업이 야기한 환경파괴 또는 이로부터 파생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충분한 가치를 창출하는가를 나타내는 Green Value Added 또는 Net Value Added가 결과로서 산출된다[3][10][11].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적 토대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은 사회적, 생태적 외부효과를 화폐가치로 평가함으로써 인해 기업현장에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27].

외부비용의 측정을 위한 대안은 생태적 부하의 예방비용을 결정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4]. 즉, 생태적 부하에 대한 외부비용의 측정에 비해 여기에서는 생태적 부하가 기술적 해결방안의 투입을 통해 예방 또는 축소되어지는 경우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측정한다[4]. 상술한 Green Value Added 또는 Net Value Added와 유사하게 이러한 접근방법 또한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수정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나, 모든 생태적 부하에 대한 예방비용의 광범위한 측정은 불가능하다.

환경손실 또는 파괴 그리고 예방비용 지향적 접근과 더불어 기업 지속가능성 성과의 측정을 위해 효율 지향적 측정척도가 제안되기도 하였다[12][24]. 이러한 효율 지향적 측정척도는 기업이 만들어낸 가치(가치창출)를 이를 통해 발생한 생태적 부하(유해창출)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유해창출의 측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생태적 부하(Load)들을 집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부하의 상대적 유해성(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측정되고 가중치 부여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외부비용 또는 예방비용의 산출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태적 부하의 상대적 가중치를 계산해 낼 수도 있다[10][11].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효율 지향적 접근방법은 특히 생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절대적 기여, 즉 생태적, 사회적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26][29]. 효율 지향적 측정척도는 또한 개선된 경제적 활동이 생태적, 사회적 효과성을 악화시키는 경우 지속가능성 성과의 개선을 보여준다. 이러한 균형을 초과해 강한 경제적 성장을 통해 생태효율의 개선의 과잉보상(over-compensation)의 결과로 나타나는 생태효과성 악화의 경우를 반동효과(Rebound-Effect)라 한다[9].

상술한 방법은 모두 기업이 생산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외부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평가하는 부하 지향적(burden-based)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상대적 또는 절대적 부하의 평가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부하형태는 각각의 부하강도 관점에 따라 측정되어지고 비교 합산된다. 그러나 지속가능가치평가는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교 대상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였는가(value-based)의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가치지향적 평가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 지향적 접근을 통한 기업 지속가능경영 성과 평가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지속가능가치모델이 부각되고 있다. 지속가능가치는 지금까지의 지속가능성평가를 위한 부하 지향적 접근방법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지속가능가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외부비용 또는 예방비용을 화폐로 평가하는 것으로 다른 접근방법과는 달리 부하 지향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10]. 다양한 생태적 부하의 비중은 생태적 부하의 상대적 또는 절대적 유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그리고 이로부터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에 의해 평가된다. 지속가능가치는 또한 효율 지향적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른 접근방법에 비해 생태와 사회효과성, 즉 생태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축진하는 절대적 수준이 명확히 고려된다. 이처럼 지속가능가치는 생태적, 사회적 효과성에 기반을 두어 기업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평가한다.

지속가능가치평가기법은 ADVANCE(App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Value-Based Eco-Ratings in Financial Markets)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 적용되고 있다. ADVANCE프로젝트에서 비교대상은 유럽연합의 15개 회원국 전체의 환경, 경제성과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의 성과평가와 더불어 2010년의 정책목표(유럽연합의 경제성장목표, 교토의정서 상에 합의된 목표(이산화탄소, 메탄), 예테보리 목표(이산화황, 질소산화물, VOC), 유럽연합 폐기물목표 등)를 활용하여 미래 규제위험에 대비한 미래시나리오 평가가치를 포함하고 있다[32].

2. 지속가능가치의 평가방법론과 적용사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된 지속가능가치컨셉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부하 정도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상대적으로 보여

주는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이 가지는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생태효율성의 개념은 먼저 환경영향 및 경제적 성과의 절대치, 즉 효과를 배제하고 있고, 둘째, 생태효율성의 증가가 곧 생태효과성(eco-effectiveness)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2005년, IOEW와 IMUG이 실시한 독일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Henkel의 경우 1999년과 비교하여 2000년에 예코효율성은 증가한 반면, CO₂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남[10]), 셋째, 생태효율성의 개념에는 지속가능성의 큰 축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26].

기업의 지속가능가치는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10][11][34]. ① 각각의 자원(resource)에 대한 사용효율을 계산한다. ② 비교대상(benchmark)의 자원사용효율을 계산한다. ③ 위 두 값의 가치편차(value spread)를 구한다. ④ 기업이 사용한 자원의 총량에 앞서 구한 가치편차를 곱한다. ⑤ 각각의 자원사용에 따른 지속가능가치를 합산하고 이를 고려된 자원의 수로 나눈다.

지속가능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태, 경제, 사회적 측면의 부문별 가치를 화폐화한 후 이를 합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서나 재무보고서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통해 제공된다. BP(British Petroleum)의 2001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토대로 지속가능가치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10][11][34]. BP는 세계최대의 정유회사로 환경적 영향이 큰 기업이나 2005년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지속가능기업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BP가 생성한 가치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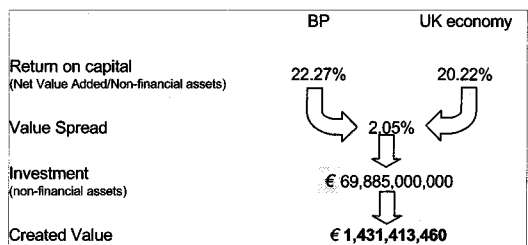


그림 1. BP의 경제부문 가치창출

2001년 BP의 자본수익율은 22.27%로 영국 산업전체의 평균 자본수익률 20.22%에 비해 2.05%가 높았다. 이는 곧 BP의 2001년 경제적 효율성이 영국 산업전체에 비해 2.05% 높으며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영국 산업평균보다 14억 유로 많은 가치를 생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경제부분의 가치창출은 BP의 자본이 영국 전체산업에 일률적으로 투자되었다면 영국경제는 14억 유로만큼 좋아졌을 것이며, 그 만큼 BP는 영국경제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자본수익율을 기준으로 생성된 가치 값을 측정한 후에 기타 자원사용에 따른 가치 값을 측정해야 한다. CO₂ 배출량 예를 들어 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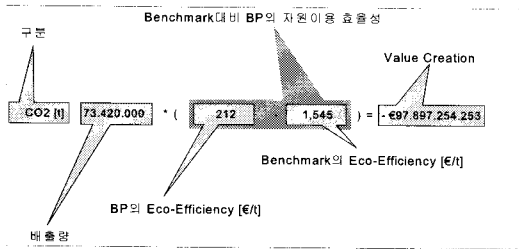


그림 2. BP의 이산화탄소부문 가치창출

2001년 BP가 배출한 CO₂는 73백만 톤이었으며, 에코 효율성은 212€/t이었다. 이는 영국 산업계 전체의 CO₂ 부문 평균 에코효율성인 1,545€/t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양자 간의 가치편차를 구하여 BP의 배출량과 곱하면, -978억 유로의 CO₂부문 가치가 산출된다. 이는 BP는 영국의 환경가치를 약 980억 유로만큼 하락시켰으며, BP의 CO₂가 영국 산업전체로 분산되었다면 영국의 환경가치는 약 980억 유로만큼 개선되어졌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양한 자원 사용에 의한 가치창출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면 BP의 지속가능가치가 다음 [그림 3]과 같이 산출된다.

경제, 환경, 사회적 요소에 대한 가치를 모두 합하고 이를 평균하여 전체적인 지속가능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BP는 2001년 약 720억 유로의 (-)지속가능가치를 창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국 GDP의 8%에 해당하는 액수로 BP가 매년 일정하게 지속가능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영국 GDP의 8%에 해당하는 액수를 매년 투자해야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영국의

GDP가 일정하다면 BP입장에서는 지속가능경영 투자의 8%정도를 줄여도 BP의 지속가능가치는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mount of resources used	Efficiency of BP [€/Unit]	Efficiency of UK [€/Unit]	Value Contribution
Capital [€]	69,886,000,000*	0.22 -	0.20	= €1,431,413,469.96
CO ₂ [t]	73,420,000*	211.97 -	1,545.36	= -€97,897,254,253.28
CH ₄ [t]	367,201*	42,362.78 -	403,016.89	= -€132,425,206,435.02
SO ₂ [t]	224,541*	69,310.28 -	786,416.00	= -€161,019,635,056.00
NO _x (as NO ₂) [t]	266,133*	58,478.28 -	526,617.86	= -€124,587,390,175.00
CO [t]	124,584*	124,919.73 -	223,047.52	= -€12,225,152,606.08
Work accidents [nb]	83 *	187,506,024.10 -	6,667,254.48	= €15,009,617,878.46
PM10 [t]	16,666*	933,817.35 -	4,970,325.84	= -€67,272,450,494.38
2001년 BP의 Sustainable Value				-€72,373,257,210.17

그림 3. BP의 지속가능가치

상술한바와 같이 지속가능가치가 화폐가치로 평가됨으로써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전략을 보다 정량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속가능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입안과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보고서평가 시 지속가능한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기업 지속가능가치에서 찾아보며, 이를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토대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업의 추상적 목표에 대한 기업차원의 실천성과를 정량화 내지 정형화하는 방법론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한 지속가능가치평가 적용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속가능가치는 기업이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 사회 그리고 생태적 영역에 걸친 성과를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가치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로는 우선,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경제, 사회, 생태적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지속가능가치평가모델 역시 기존의 평가모형과 마찬가지로 경제, 사회, 생태적 영역별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종합하는 형식으로 부분별 성과의 현황과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생태, 사회 그리고 경제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원인분석기능이 취약하다. 예를 들면, 생태적 성과의 악화가 경제나 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같은 생태, 사회, 경제 부분 간 상호유기적 관계가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BP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토대로 한 지속가능가치평가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이 소속되어있는 업종이나 기업별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사례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속가능가치평가모델을 기업현장에 적용하였을 경우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 및 기업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지속가능가치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가능하나 또한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속가능성보고서평가에서 한계로 지적했듯이 기업이 작성 및 공표하는 보고서가 담고 있는 정보나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은 추가적인 문제를 제시한다. 지속가능가치가 내부적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 내부정보의 충실성의 문제는 의사결정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가 판단해야할 문제이지만, 외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가능성과 신뢰성은 지속가능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직결된다. 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사회, 생태적 영역을 포괄하는 정보 수집을 위한 시스템이 체계화되어있지 못하며, 수집된 정보라 하더라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속가능가치평가를 위한 지표가 산업별,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정되어야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등을 통한 정보의 공개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은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가치평가결과를 지속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각 영역별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또한 각각의 개별지표에 의

해 측정 및 평가된 성과를 어떻게 각각의 영역별 성과로 종합할 것이며, 3대 영역별 성과를 어떻게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일성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또한 지속가능가치평가를 통해 가치창출을 진단하는데 있어 어떠한 자원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화폐가치화되어 산출된 지속가능가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특히, 산업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가치의 산출법을 마련하여 기업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전략, 활동, 성과, 영향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수단인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속가능가치평가에 활용할 경우, 지속가능가치평가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성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충실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보고서가 기술하고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남상민, "환경보고서 시상체계의 국제비교 및 시사상을 위한 평가방법론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17권, 제6호, pp.2739-2763, 2004.
- [2] ACCA, Towards transparency: progress on global sustainability reporting, London, 2004.
- [3] G. Atkinson, "Measuring Corporate Sustainabil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Vol.43, No.2, pp.235-252, 2000.
- [4] P. Bartelmus, "Accounting for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3, No.2, pp.241-260, 1992.
- [5] J. Clausen, T. Loew, K. Klaffke, M. Raupach, and I. Schoenheit, The INEM(International Network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 IOEW: IMUG, 2001.
- [6] R. Costanza, H. Daly, and J. Bartholomew,

- Goals, Agenda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Ecological Economics, in: R. Costanza(Hrsg.), Ecological Economics. The Science and Management of Sustainabil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pp.1-20, 1991.
- [7] H. Daly, "Towards Some Operational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Ecological Economics, Vol.2, No.1, pp.1-6, 1990.
- [8] H. Daly, "On Wilfred Beckerman's Critique of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Values, Vol.4, No.2, pp.49-55, 1995.
- [9] T. Dyllick and K. Hockerts, "Beyond the Business Case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Vol.11, No.2, pp.130-141, 2002.
- [10] F. Figge and T. Hahn, "Sustainable Value Added - ein neues Maß des Nachhaltigkeitsbeitrags von Unternehmen am Beispiel der Henkel KGa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Vol.73, No.1, pp.126-141, 2004I.
- [11] F. Figge and T. Hahn, "Sustainable Value Added - Measuring corporate contributions to sustainability beyond eco-efficiency," Ecological Economics, Vol.48, No.2, pp.173-187, 2004II.
- [12] M. Freeman, R. Haveman, and A. Kneese, The Economics of Environmental Policy, John Wiley & Sons, 1973.
- [13]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2002, 2006.
- [14] N. Hanley, "Macroeconomic Measures of Sustainability," Journal of Economic Surveys, Vol.14, No.1, pp.1-30, 2000.
- [15] M. Harte, "Ecology,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as Capital," Ecological Economics, Vol.15, No.2, pp.157-164, 1995.
- [16] J. Hartwick,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the investing of rents from exhaustible resources," American Economic Review 67, pp.972-974, 1977.
- [17] F. Neumayer, Weak versus Strong sustainability, Exploring the Limits of Two Opposing Paradigms, Elgar, 1999.
- [18] B. Norton and M. Toman, "Sustainability: Ecolog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Land Economics, Vol.73, No.4, pp.553-568, 1997.
- [19] Österreichisches Institut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Reporting about Sustainability - in 7 Schritten zum Nachhaltigkeitsbericht, 2003.
- [20] D. Pearce, "Economics,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utures, Vol.20, No.6, pp.598-605, 1988.
- [21] D. Pearce and G. Atkinson,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 evaluation of its usefulness ten years after Brundtland," Swiss Journal of Economic and Statistics 134, pp.251-269, 1998.
- [22] T. Prugh, R. Costanza, J. Cumberland, H. Daly, R. Goodland, and R. Norgaard, Natural Capital and Human Economic Survival, 2nd ed. Lewis Publishers, 1999.
- [23] N. Roome, *Sustainability Strategies for Industry: The Future of Corporate Practice*, Island Press, 1998.
- [24] S. Schaltegger and A. Sturm, "Ökologische Rationalität: Ansatzpunkte zur Ausgestaltung von ökologieorientierten Managementsinstrumenten," Die Unternehmung, Vol.44, No.4, pp. 273-290, 1999.
- [25] R. Solow, "On the Intertemporal Allocation of Natural Resources,"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88, No.1, pp.141-149, 1986.
- [26] V. Stahlmann, "Öko-Effizienz und Öko-Effektivität. Lässt sich der Umweltfortschritt eines Unternehmens messen?" Umweltwirtschaftsforum 4, pp.70-76, 1996.
- [27] A. Steer and E. Lutz, Measuring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In: I. Serageldin & A. Eteer(Eds.), Making Development Sustainable, From Concepts to Action.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pp.17-20, 1994.

[28] D. Stern, "The Capital Theory Approach to Sustainability: A Critical Appraisal," Journal of Economics Issues, Vol.1, No.1, pp.145-173, 1997.

[29] A. Ullmann, From Eco-Efficiency to Eco-Effectiveness, Prolegomena to a Gaian Theory of Strategic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Interactive Paper Upload System, Paper 31761, 2001.

[30] <http://www.accaglob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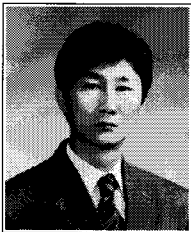
[31] <http://www.globalreporting.org>

[32] <http://advance-project.org>

저자 소개

남 상 민(Sang-Min Nam)

정회원



- 2000년 7월 : 독일 괴팅겐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현재 : 동명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마케팅, 국제경영, 환경경영